



강진 김명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 순천시, 한국 축구 새 요람 '축구종합센터' 유치 총력

### 전남도와 공동 유치위원회 구성



전남도와 순천시는 최근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공동 유치위원회(TF)를 구성하고 기획운영팀, 민간 참여팀, 대외홍보팀별 전담방안을 논의했다.

축구종합센터는 현재 국가대표팀 훈련장으로 이용 중인 파주 NFC(National Football Center) 3배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총사업비 1500억원, 부지 규모 33만㎡로 조성된다. 울산광역시를 포함해 전국 24개 지자체가 신청해 치열한 유치경쟁을 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에서는 순천시가 유일하다.

전남도와 순천시는 공모접수 지자체 최초로 광역·기초 공동 유치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라남도체육회, 순천시체육회, 순천시축구협회와 함께 190만 도민의 열망을 하나로 모으는데 힘을 쏟고 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NFC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말 서류심사를 거쳐 3월 프레젠테이션과 현장 실사 후 우선협상대상 지자체를 발표할 계획이다.

순천시에서는 축구 국가대표팀의 산실이 될 축구종합센터가 들어서면 축구 메카로서의 상징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10년간 생산유발효과 2조5천억, 부가가치 1조4천억원, 고용유발효과 4만 1885명 등 경제·문화적 파

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 순천시는 대한민국 대표 정원도시, 생태도시로서 풍부한 관광 자원과 숙박 인프라를 갖추고 겨울철 평균 기온 영상 2.1℃, 미세먼지 없는 청정 환경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외서면 일원에 경쟁력 있는 입지를 확보한 상태다. 이 지역은 남해고속도로 5분, 호남고속도로 15분, 순천역·여수공항 30분 안팎의 거리에 위치해 신철도 대부분이 공유지이며, 토지매입비가 저렴하다.

또한, 광주·전주·대전·대구 월드컵경기장과 1~2시간 거리에 위치해 외부와의 연결성도 장점으로 꼽히며,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인 성가톨릭병원과 종합병원 4곳이 있어 선수들의 신속한 부상 치료와 빠른 피로회복, 국가대표팀 경기력 향상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김병주 TF단장(순천시 부시장)은 "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중심 시설 설치보다는 충청 이남지역과 영호남을 아우를 수 있는 순천이 최적지"라며 "국가대표 선수 및 국민의 건강과 훈련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순천 유치를 총력을 다 하겠다"고 유치를 지지를 표명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구례군, 군민과 공감대화 성료



구례군은 '더 괜찮은 구례', '더 희망찬 구례'를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한 8개 읍면 순회 '군민공감대화'를 12일 구례읍을 시작으로 15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군민공감대화는 민선7기 원

년을 더 힘차게 발돋움하고 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마련한 중요한 자리로 김순호 군수를 비롯한 읍·면 기관단체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 군수가 직접 2019년 군정비전을 PPT로 보고하여 군민들이 군정을 더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구례군의 오랜 숙원 사업인 지리산케이블카 설치, 인구3만명 달성, 2030 구례비전종합계획 수립, 지리산온천지구, 화엄사관광, 섬진강권역, 구례읍권역의 활성화 방안 등 구례를 발전시킬 여러 가지 비전

을 제시했다.

김 군수는 군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군민들로부터 들은 긍정비전을 위한 제안, 주요 시책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즉답으로 해결하고, 바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현장방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순호 군수는 "구례는 작은 지역이지만, 좋은 환경과 우리 군민들이 함께 있어 희망이 있다. 군정에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성원을 보내 달라며, 하나 된 구례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 농어촌공 함평지사, 금년도 사업비 163억원 조기집행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는 2019년 1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생산기반정비, 수리시설개보수, 지역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마을개발사업은 해보면, 손불면, 신광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함평군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며 23억을 투입한다. 또한, 마산 석창지구 배수개선사업에 33억을 투입하여 매년 상습침수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대동, 월야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0억원을 투입,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영농편의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농지은행사업 64억원, 경지정리 및 기계화경작사업 3억, 유지관리사업 4억, 기타부대사업에 1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연근 지사장은 "상반기 사업비 70%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훈 기자

## 광양시, 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이하

### 논란 분분한 유출수 환경부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기로

광양시가 지난 1월 30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처리수를 직접 채취해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분석 의뢰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체수한 시료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분석 의뢰한 항목은 시안, 카드뮴 등 총 8개 항목으로, 분석결과 1고로 생산설비는 구리는 0.006mg/l로써 기준치인 3mg/l의 50배 이하이고, 나머지 항목은

불검출로 나타났다.

2고로 생산설비는 시안이 0.03mg/l로써 기준치인 1mg/l의 33배 이하이며 나머지 항목은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

시는 검사 결과가 모두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동안 수재슬래그 유출수가 폐수인지를 침출수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의견이 분분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을 폐

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해 온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시청 환경과 직원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순천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서경철 환경과장은 "그동안 환경시범은 예외 없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 왔으며, 이번 사건 역시 철저히 조사해 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광양=김승호 기자

## 보성군, 월동모기 유충 구제 작업 실시

보성군은 모기 등 위생해충으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13일부터 3일간 월동모기 집중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모기 유충구제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충 구제 작업은 채집 장비로 유충 밀도를 파악한 뒤 유충 구제제(驅除劑)를 살포해 제거한다. 이날 방제단은 공공기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집수정화 485개소, 유충 서식지를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추진했다.

겨울철 모기는 따뜻한 지하실 및 정화조, 하수구 등 물이 있는 좁은 공간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지기 전 이곳을 집중 방역 소독하여 월동하는 모기 유충이 성

충으로 부화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활동으로 여름철 성충 개체수를 감소시켜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유충 구제 작업 3월에 추가 실시하여 방역 효과를 더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기유충인 장구벌레는 14일이 지나면 성충 모기가 되며 모기 한 마리가 일생동안 평균 4~5회에 걸쳐 5백여 개의 알을 산란한다. 유충 박멸은 최대 500마리의 성충 모기를 없애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 순천시, 충전 시설 확대 전기자동차 보급에 박차

순천시는 2019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정된 보급량은 195대로 승용전기자동차의 경우 보조금이 대당 최대 1780만원, 소형전기자동차는 대당 860만 원을 지원 한다.

국비 지원금이 지난해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줄었지만 시 예산을 전년도와 같은 지원액으로 책정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이전부터 순천시에 주소를 1년 이상 갖고 있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기업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영업소(대리점)를 방문해 상담 후 차량 구매 계약 시 신청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사에서 순천시 생태환경과로 제출하게 된다.

순천시는 기후변화 이슈인 미세먼지 대응 강화 정책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를 선도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대기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천=황경석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총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체적인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불합치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등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